



혁신 Newspaper



발행처 : 항공교통센터 (우) 400-650 인천 중구 운서 인천공항우체국 사-26호 /전화 032-880-0224 /전송 032-889-2376 /http://acc.moct.go.kr



혁신탐사

혁신도시를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장 이춘희

도시는 우리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음식을 담는 그릇에 따라 음식의 맛과 품격이 달라지듯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도시는 그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의 품격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예술의 도시 비엔나의 건교부차관 이춘희 시민들에게선 어딘가 모르게 예술가의 멋을 느끼게 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훌륭한 공원이 있는 밴쿠버의 시민들에게선 여유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또 세계적인 명품도시에는 독특한 예술적인 건축물들이 그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갔던 비용은 약 1억 2천만 호주달러였지만 현재의 가치는 13억 호주달러로 약 10배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건설 초기에는 파격적인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도시경쟁력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현재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엠셔파크는 1980년대에 버려진 루르 공업 지대를 1989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3조 15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한 ‘변신’을 통해 현재 창조도시의 모범적인 견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버려진 광산터는 시민 골프장과 포도밭으로, 100미터 깊이의 가스 탱크는 다이버 잠수 훈련장으로 바뀌었고, 버려진

제철소는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태어나 관광명소가 되었다. 이러한 창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루르공업 지대는 문화, 놀이, 전시가 넘쳐나는 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실업자로 전락했던 노동자들에게 관리직 또는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은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싶은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수준 높은 교육·문화·주거·교통·환경 등을 골고루 갖춘 경쟁력이 있는 도시,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참여 주체간 공동협력을 통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선도하는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건설이 기존의 신도시와 달리 추구하는 방향, 목표 등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식,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창조적인 도시에 관해서는 영국의 저명한 문화 및 문화산업 컨설팅 그룹인 코메디아(Comedia)의 창설자인 란드리(Charles Landry)가 저술한 『창조적 도시』(The Creative City, Charles Landry, Comedia, 2000, London)라는 책을 보면, 세계적인 도시의 빈부 격차, 실업 문제,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창조적 역량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시발전의 새로운 축으로서 창조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중략)

혁신도시가 창조적이고 모범적인 도시가 되어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적인 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과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이다.



항공소식

한국, 아프리카 케냐와 항공자유화 합의

- 아프리카 지역으로는 첫 여객부문 항공자유화 -

건 설교통부는 지난 4월 26일~27일(2일)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한/케냐 항공회담(우리측 수석대표: 정일영 항공기획관, 케냐측 수석대표: 교통부 사무차관 Gerrishon K. Ikiara)에서 지난 화물자유화('05.11)에 이어 여객부문 항공자유화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양국간 운항횟수에 제한 없는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케냐는 2007.9.18~9.28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36차 ICAO 총회에 ICAO 이사국으로 입후보하는 우리나라를 적극 지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는 올해 말레이시아에 이어 두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국적항공사의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 향후, 이 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 항공사의 자율적 영업기반 강화 및 이용객들의 이용편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항공위상도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는 인구 약 3,500만명, 면적 58만km²(한국의 6배)로 자연경관이 좋고, 킬리만자로산과 인접하여 잠재적 관광수요가 풍부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선거를 앞둔 올해 7월경에는 아프리카 52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아프리카민간항공위원회(AFCAC)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케냐와의 항공자유화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항공자유화 추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항공협력 관계가 한층 두터워 지는 것은 물론, 여객자유화 확산으로 인한 여행객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공항, 자가용 승객 입·출국절차 대폭 간소화

- 기업 CEO와 유명인사 이용 늘 듯 -

건 설교통부소속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8일부터 국제선 자가용 승객의 입·출국절차 소요시간을 현재 1시간20분대에서 20분이내로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김포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 등 세계적인 기업 CEO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통해 주로 입·출국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자가용 항공기 429대가 김포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바 있다.

그동안 국제선 자가용 승객은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국내선 여객청사를 경유, 다시 항공기까지 2.6km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입·출국 소요시간도 1시간20분 가량 걸리는 불편이 있었다.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정원과 세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공항공사 등의 협조로 획기적인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우리나라가 인천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와 행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서울로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만큼 김포공항이 국제선 자가용 중심의 공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연합뉴스(5/2)

공항시설 안내표지판 개선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공항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 안내표지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6월부터 2009년까지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재 공항의 안내표지판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 14,19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공항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 각각 표시되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 3,773개를 1,016백만 원을 들여 개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그림표지(픽토그램) 산업표준(KS)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마련되었는데, 산업표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항시설 표지판은 명칭, 색채, 그림문자 등이 산업표준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해가 어렵고, 특히, 공항운영자(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간에도 서로 다르게 설치된 표지판이 많아 공항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었다.

또한,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항시설의 안내표지판은 모두 산업표준에 따르고, 산업표준에 없는 표지판은 동아시아공항연합(EAAA) 의결안 등 외국 사례를 감안하여 공항운영자가 명칭, 색채, 그림문자 등을 서로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여 표준화를 할 예정이다.



혁신으로 가는길

한번에 OK,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일 마전 모 일간지에서 서울에 사는 한 독거 노인이 지난해 말 민간기관과 복지시설로부터 40kg의 김치를 받아 겨울내내 먹었지만 아직도 절반이 남아 집과 냉장고에는 김치가 가득하여 처치 곤란하다는 기사를 읽을 적이 있다.

기사는 서울에 사는 2명의 독거노인들의 예를 들면서, '정부의 복지예산 확충 등으로 복지서비스가 크게 늘고 있으나 수혜자들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는 바람에 지원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수혜자들은 과도한 중복지원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제때 지원을 못받는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실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의 문제는 언론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불편하며, 주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나 이를 주관하는 부서들간에도 유사·중복이 있는 등 비효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의 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의 주도하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래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바꾸고자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주민들이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한번만 방문하면 별도의 상담실에서 심층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단계로 전국 53개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와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지방행정조직개편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금년 1월부터는 추가로 129개 시군구가, 그리고 7월부터는 나머지 50개 시군이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자원조사를 토대로 민·관 네트워크 형성

또한 시군구와 민간단체·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자원에 대한 지역별 통합조사가 이루어져 유형별, 대상별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내 민간기관, 시설·종교단체 등이 보유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자원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함으로써 서비스 자원의 중복지원이나 누락을 방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와 아울러 금년 7월부터는 지역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서비스 자원을 총망라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각종 서비스 신청 및 자격 조회 등을 할 수 있어 주민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서비스 제공 주체들간의 정보공유와 유기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 지역 서비스 자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 서비스도 조정

한편,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유사·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민·관협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노력이 활기를 띠면서 점차 가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되어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있다.

앞으로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통합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 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진행형의 과제이다.

특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무썽록 국민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다같이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

<기고 = 지방행정본부장 겸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장/권혁인>



독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항공교통센터에서는 혁신분위기 확산, 혁신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창의적인 혁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혁신 NEWS PAPER』를 발간·배포하고 있사오니, 각 기관 또는 개인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활동을 게재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혁신NEWS PAPER 발간 및 배포안내

- 발 간 : 주 1회(매주 화요일)
- 배 포 : CTNET, 우리센터 게시판, 구독자 전자우편 등
- 편집부 : 항공교통센터 공역과 (편집장 : 장재수)
- 전 화 : 032-880-0224 팩스 : 032-889-2376 E-mail : atcchang@moct.go.kr

※ 본 지의 내용은 우리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